좋은 사람들의 좋은 글을 보냅니다... 오늘의 아침편지

★ 사랑해휴 얼마 ★

가슴에 흐르는 사랑을 막고 있었다면 흐르게 하십시오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그저 나를 낯아주신 것만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까지 용서를 빌고 화해하십시오. - 송희의《사랑한다 아가야》중에서 -

* 결혼을 하고 나니 고마운 사람이 많아지고 아이를 낳고 나니 미안한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 사람들 중 가장 고맙고, 미안한 사람, 바로 엄마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워주신 것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보시니 참 좋았더라 / 이 그림을 내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해요



광양사랑의교회

한국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로 이 땅을 덮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구제하며 전도합니다. 한국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는 이와 함께 울고, 웃고 있는 이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 속 같은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로 나가셔서 주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세요.이 아름다운 한국교회 중 하나인 광양사랑의교회를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순천노회 광양남시찰 소속 설립일: 2004.4.12 545-881 전남 광양시 중동 1617-10번지 http://kysarang.org/ www.smileman.info ☎ 061-793-1294(교회) / 794-7130(사택) 담임교역자 웃는사람 라종렬목사 (010-5686-3626)

• 광양사랑의교회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춤추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

인 공동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꿈꾸시며 성령님 이 춤추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광양사랑 의교회의 꿈입니다

• 광양사랑의교회는

모든 성도가'매일성경(성서유니온)'묵상지로 매일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이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 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

• 광양사랑의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과 21C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매일새벽 5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오전 9시 청소년부예배 주일오전 9시 삼일밤예배 수요일오후 7시30분 민들레주부묵상모임 금요일오전 10시 묵상나눔모임 나눔터별 정한시간 화요성경학교 매주화요일 오전10시

• 광양사랑의교회가 후원하는 곳 국제비전선교회 김경식선교사(스리랑카) SU 에스라





Gwang Yang SARANG Church | kysarang.org

Since 2003MCC 2007GSC 제12권6호 주현절후다섯번째주일 2015년2월8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모험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가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로맨스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무력하게 느껴질 때, 어떤 노력도 부질없을 때, 세상이 모두 내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 눈물이 터지기 직전, 바로 이런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사랑의 전도편지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보이지 않는 공기에 무게가 있을까? 있지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마음에도 무게가 있을까? 있는 것 같아요. 맘이 가벼우면 눈도 크게 떠지고 즐거워 입 꼬리도 올라가는데, 마음이 무거우면 표정도 어깨도 그 무게에 눌려서인지 다 늘어지게 마련이죠. 맘을 누르는 일이 계속되면 저는 몸도 아프고 다른 일도 잘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짐이 생기면 부지런히 내려놓고 벗어버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네요. 쉬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땐 좀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에 그의 멍에를, 생각에도 멍에를, 행동에도 멍에를 쓴 것 같아 불편했지요. 내 맘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았고, 간섭 받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을 바라보니 나 혼자 맨 줄 알았던 멍에를 예수님께서 나와나란히 매고 계셨어요. 나와 같이 지신 듯하나, 실상은 그가 내 짐을 다지고계셨지요. 날 자유롭지 못하게 매었던 것은 그의 멍에가 아니라 죄의 짐이었고, 날 힘들게 하던 것은 그의 간섭이 아닌 내가 지던 삶의 짐이었어요. 그의 멍에는 날 지키고 가볍게 하시기 위한 사랑이었지요.

그의 멍에를 매고 나니, 짐으로 여겨지던 일상이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때론 짐이라 부르던 그 일이 복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그의 멍에를 매고나니, 내 힘으로 벗을 수 없던 죄의 짐을 그가 벗겨주셔서 나는 비로소자유로워질 수 있었지요. 이제는 누가 씌우려 하지 않아도 자유함으로 그의 멍에를 써요. 시간과 생각과 행동 뿐 아니라, 물질과 재능과 꿈에까지도 그 멍에를 기쁨으로 쓰지요. 그의 멍에를 쓰면 그가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멍에를 쓰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쓰면 삶이 가벼워지고 쉬워져요. 예수 믿으세요.

그의 멍에는 쉼과 자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 글쓴이 이종혜 ☺

	에배 > 는 그 극은 > 에 대한	⊃음착·> 하디라
● 주일 낮 °	иоп Наполительной применента и полительной применента и полительной применента и полительной применента и политель	주일오전 11:00
경배와 찬양	10시45분부터 찬양합니다	다같이
예배의부름	찬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참회의기도	영광송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절만 다같이
대표기도		변석정집사
찬양	찬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다같이
<u> </u>	4 출애굽기 8:16-32	
	내 내다 경을 보내라	라종렬목사
결단&합심기	도 찬70장 피난처 있으니	다같이
통한기도		인도자
축도(강복선(언)	인도자
는 는 사람이 가능한 기계를 가는 사람이 되었다.		성도의교제

주일오후찬양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주일 오후2시 코이노니아 주일 ('코이노니아'는 교제,친교의 의미)	수요일 오후7:30 묵상나눔모임	매일 새벽5:30 출애굽기강해

· 나눔&환영 Sharing & Welcome

■ **2**월 주일낮예배 대표기도자 안내 ■ 1주:목회기도 / 2주:변식정집사 / 3주:김나영집사 / 4주:이선영집사

* **새가족 환영** :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면당이 있습니다

* 모임안내

- 오늘 오후에는 코이노니아주일로 함께 교제합니다(매월둘째주원오후) 🎎

* 기도제목

- 서성님집사님의 딸 수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 교회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 꼭 매일성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 묵상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